일간보사 <04. 3. 23>

病院산책

한국심장재단, 서울대 소아병원서 2만번째 새생명 탄생

◇ 심장재단 2만번째 새생명 수술 후원. 사진왼쪽부터 이용각 심장재단 이사장, 지원군 보호자와 지원군, 김용진 서울의대 교수.

○…심장병 환자를 돕는 민간단체의 선행이 2만번째 새생명을 탄생시켰다. 한국심장재단(이사장 이용각)은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박지원군(남·생후 5개월)에게 축하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박군은 심장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마친 2만번째 환자로 생후 1개월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활로씨 4징'으로 진단 받았으나 생활고로 인해 수술을 엄두도 못내는 상황.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심장재단과 만나 수술비를 100%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받고 지난 11일 흉부외과 김용진 교수의 집도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22일 퇴원하게 된 것. 지난 1984년 심장병 환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창립된 한국심장재단은 매년 1000여명의 수술비를 지원하여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등불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심장재단은 2만번째 새생명 탄생의 기쁨과 함께 재단 2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축하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

/ 이창진 기자 jina@bosa.co.kr